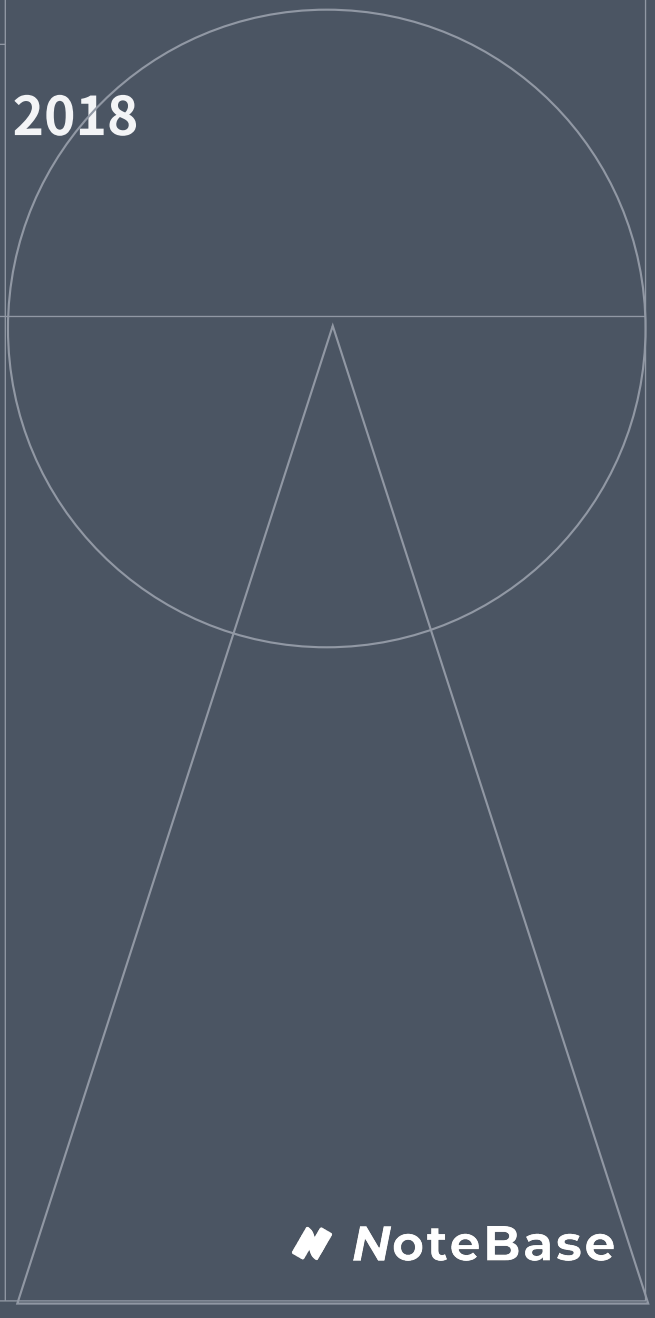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18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18

1.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꽃 중의 꽃 무궁화가 활짝 피었다.
② 새로 들어온 요리사는 다년간의 경험을 살려 손님을 끌었다.
③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④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 심보가 참 못 된 친구이다.
⑤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따라 한 단어로 굳어진 말과 각각의 단어로 쓰인 구성을 구별하고, 조사·어미·접사의 결합과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띄어쓰기는 단어를 단위로 하되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어미·접사는 결합하는 말에 붙여 쓴다. '못되다'가 '성질이나 품행이 좋지 않다'라는 뜻의 한 단어인 형용사로 쓰이면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중'은 '여럿 가운데'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 '꽃'과 띄어 쓴 '꽃 중'이 맞고, 조사 '의'는 '중'에 붙여 쓴다.
② O — '다년간'은 '여러 해 동안'을 뜻하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③ O — '아무것'은 한 단어인 대명사이고 조사 '도'는 앞말에 붙이므로 '아무것도'가 맞다.
④ X — 문맥상 '못 되다'는 '되지 못하다'라는 두 단어의 구성이 아니라, 심보나 성질이 좋지 않다는 뜻의 형용사 '못되다'이다. 틀린 표현은 '못 된'이며, 올바르게는 '심보가 참 못된 친구이다'로 쓴다.
⑤ O — '-기는커녕'은 앞말에 붙여 쓰는 연결 어미이고, 조사 '만'도 '멀어져'에 붙인다. 진행의 뜻을 더하는 보조 용언 '가다'는 앞말과 띄어 '멀어져만 갔다'로 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못 된'을 단순히 부정 부사 '못'과 동사 '되다'의 구성으로 보면 틀리기 쉽다. 이 문장에서는 '심보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이므로 한 단어 '못된'이 된다. 반면 '원하는 사람이 못 되었다'처럼 '되지 못하다'라는 뜻이면 '못 되다'로 띄어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못되다'가 '성질·품행이 나쁘다' 또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다'라는 한 단어의 뜻이면 붙여 쓰고, '되지 못하다'로 풀리는 부정 표현이면 '못 되다'로 띄어 쓴다. 조사와 어미는 결합하는 말에 붙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띈다는 원칙도 함께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성질이 나쁘면 '못된 사람', 자격을 이루지 못하면 '사람이 못 되다'이다.

NoteBase

2. 다음 물건을 세는 단위 또는 숫자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죽: 오징어 열두 마리
② 쾌: 북어 스무 마리 또는 엽전 열 냥
③ 우리: 기와 이천 장
④ 강다리: 쪼갠 장작 100개비
⑤ 뭇: 생선 열 마리 또는 미역 열 장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전통적인 수량 단위와 그 수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통 수량 단위는 특정 물건을 일정한 수로 묶어 세는 말이다. 죽은 옷·신·그릇 따위 열 벌을, 축은 오징어 스무 마리를 세는 단위이다. 쾌는 북어 스무 마리 또는 엽전 열 냥, 우리는 기와 이천 장, 강다리는 쪼갠 장작 백 개비, 뭇은 생선 열 마리 또는 미역 열 장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죽: 오징어 열두 마리'가 틀렸다. 죽은 옷·신·그릇 따위 열 벌을 세는 단위이다. 오징어는 스무 마리를 한 축이라고 한다.
② O — 쾌는 북어 스무 마리 또는 엽전 열 냥을 세는 단위이다.
③ O — 우리는 기와 이천 장을 세는 단위이다.
④ O — 강다리는 쪼갠 장작 백 개비를 세는 단위이다.
⑤ O — 뭇은 생선 열 마리 또는 미역 열 장을 세는 단위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오징어의 단위인 '축'을 '죽'으로 바꾸고, 스무 마리를 열두 마리로 바꾼 이중 함정이다. '죽'과 '축'은 소리가 비슷하지만 세는 대상과 수가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위 이름만 보지 않고 '대상-묶음 수'를 한 쌍으로 확인한다. 오징어가 나오면 '한 축=스무 마리'를 먼저 떠올리고, 죽은 옷·신·그릇 따위의 열 벌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오징어 스무 마리는 한 축, 옷 열 벌은 한 죽이다.

NoteBase

3. 다음 글의 등장인물의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박생은 눈을 떠서 주위를 바라보았다. 책은 책상 위에 던져져 있고, 등잔의 불꽃은 가물거리고 있다. 박생은 한참동안 감격하기도 하고 의아해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곧 죽으려나보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는 데 몰두하였다. 몇 달 뒤에 박생은 병을 얻었다. 그는 스스로, 필경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박생은 의사와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박생이 세상을 떠나려 하던 날 저녁이었다. 근처 이웃 사람들의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알렸다. "너의 이웃집 아무개 씨는 장차 염라왕이 될 것이다."

① 안빈낙도(安貧樂道)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③ 살신성인(殺身成仁)
④ 생기사귀(生寄死歸)
⑤ 조이불망(釣而不網)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한자 성어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기사귀(生寄死歸)는 삶을 잠시 머무는 것으로, 죽음을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이다. 박생은 곧 죽을 것을 알고 집안을 정리하고, 병을 얻은 뒤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의사와 무당까지 사절한다. 이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귀환처럼 수용하는 생기사귀의 태도와 가장 잘 맞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안빈낙도(安貧樂道)는 가난한 처지에도 만족하며 도를 즐긴다는 뜻이다. 이 글은 박생이 가난 속에서 도를 즐기는 모습을 다루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안빈낙도'이며, 올바르게는 박생이 죽음을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일처럼 받아들이는 '생기사귀'의 태도를 보인다고 해야 한다.
② X — 방약무인(傍若無人)은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오만한 태도를 뜻한다. 박생이 주변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거리낌 없이 행동한 내용은 없다. 틀린 표현은 '방약무인'이며, 올바르게는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담담히 수용하는 '생기사귀'라고 해야 한다.
③ X — 살신성인(殺身成仁)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룬다는 뜻이다. 박생의 죽음은 어떤 도덕적 대의나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결과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살신성인'이며, 올바르게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귀환으로 여기는 '생기사귀'라고 해야 한다.
④ O — 생기사귀(生寄死歸)는 삶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라는 뜻이다. 박생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집안을 정리한 뒤 치료와 굿을 거절하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과 정확히 부합한다.
⑤ X — 조이불망(釣而不網)은 낚시는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익이나 생명을 지나치게 탐하지 않는 절제의 태도를 나타낸다. 글의 중심은 절제된 포획이나 욕심의 경계가 아니라 죽음의 수용이다. 틀린 표현은 '조이불망'이며, 올바르게는 삶을 잠시 머무는 것으로 보고 죽음을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는 '생기사귀'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박생이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자기희생으로 오인해 ③ 살신성인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살신성인은 반드시 인이나 대의의 실현을 위한 자기희생이어야 한다. 이 글에는 그러한 목적이 없고, 집안을 정리하고 치료를 거절하며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강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행동 목적을 먼저 확인한다. 가난 속에서 도를 즐기면 안빈낙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만하게 행동하면 방약무인,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살신성인, 지나친 욕심을 절제하면 조이불망, 삶을 잠시 머무는 것으로 보고 죽음을 돌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생기사귀이다.

암기 포인트

삶은 잠시 머묾[寄], 죽음은 돌아감[歸]이므로 '생기사귀'이다.

NoteBase

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우리는 종종 창의성과 천재성을 오해한다. 여섯 살 때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다는 모차르트처럼 천재성은 특정 분야에서 일반적인 범주를 뛰어넘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음을 뜻하는 말이다. 반면에 창의성은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는 전통적인 사고유형에서 벗어나 새롭게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다.
>
> 즉,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실마리를 찾아 조합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은 창의성에 가깝고, 특정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타고난 기초 능력이 큰 것은 천재성에 가깝다. 창의성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 능력을 가리키는 셈이다.
>
> 그런 측면에서 예술가의 영감은 천재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성격을 띠겠지만, 일반인이 추구하는 창의성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개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 능력은 천재성의 징표이다.
② 창의성은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③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은 창의성의 발현이다.
④ 예술가의 영감은 창의성과 천재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⑤ 모차르트는 천재성을 타고났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글에 제시된 창의성과 천재성의 개념을 구별하고, 각 선지가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창의성은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해석·조합·재창조하는 능력이다. 선천적 재능이 아니라 노력으로 계발할 수 있다.
천재성은 특정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타고난 기초 능력이 큰 것이다.
이 글에서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 능력'은 창의성에 해당하고, 예술가의 영감은 창의성과 천재성을 함께 갖춘 성격을 띤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 능력은 천재성의 징표이다'라는 부분이 틀리다. 글은 이를 창의성을 기르는 능력으로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 능력은 창의성의 징표이다'이다.
② O — 글은 창의성이 타고난 재능이 아니며, 일반인이 추구하는 창의성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계발의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③ O — 글은 창의성을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 O — 글은 예술가의 영감이 천재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성격을 띤다고 설명한다.
⑤ O — 글은 모차르트가 여섯 살 때 연주했다는 사례를 천재성이 특정 분야의 일반적 범주를 뛰어넘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의미의 예로 제시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글에 나온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해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귀속 개념만 창의성에서 천재성으로 바꾸었다. 표현의 익숙함에 끌리지 않고, 해당 특징이 어느 개념을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조되는 두 개념의 정의와 대표 속성을 먼저 나눈다. '새로운 관계·아이디어·재해석·노력으로 계발'은 창의성, '특정 분야·평균 이상의 성과·타고난 기초 능력'은 천재성으로 대응한 뒤 선지의 개념 귀속이 바뀌었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창의성은 새롭게 생각하는 계발 가능한 능력, 천재성은 특정 분야의 타고난 뛰어난 기초 능력이다.

NoteBase

5. 다음 밑줄 친 어휘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우리는 정말 폭염이 너무하다 싶었다.
② 이번 여름 이렇게 날이 덥다니 너무하군.
③ 너무하건 말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네.
④ 빙수 한 그릇에 만 원은 너무하지 않으냐고 사정사정했다.
⑤ 동네에서 다 아는 처지에 정말 너무하신 처삽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가 같은 '너무하다'가 문맥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로 쓰이는 차이를 묻는다.

핵심 개념

형용사 '너무하다'는 '정도에 지나쳐 못마땅하다'라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동사 '너무하다'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넘어서 행동하다'라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 문항에서는 ①·②·④·⑤가 형용사이고, ③만 동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폭염이 너무하다'의 '너무하다'는 폭염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이를 품사가 다른 말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형용사로 판단한다.

② X
'너무하군'은 날씨가 몹시 더운 상황이 지나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이를 품사가 다른 말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형용사로 판단한다.

③ O
'너무하건 말건'의 '너무하다'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넘어서 행동한다는 뜻의 동사이다. 나머지 선지의 형용사와 품사가 다르다.

④ X
'만 원은 너무하지 않으냐'의 '너무하다'는 빙수 한 그릇의 가격이 지나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이를 품사가 다른 말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형용사로 판단한다.

⑤ X
'너무하신 처사'의 '너무하다'는 처사가 지나쳐 못마땅하다는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이를 품사가 다른 말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형용사로 판단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모든 선지의 형태가 '너무하-'로 같아서 품사도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특히 ③의 '-건 말건'은 동사와 형용사 모두에 붙을 수 있으므로 어미 모양만 보아서는 안 되고, '한계를 넘어 행동하다'라는 문맥상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형태의 용언은 문장 속 의미를 먼저 확인한다. 지나쳐 못마땅한 상태나 성질이면 형용사이고, 정도나 한계를 넘어 행동한다는 움직임이면 동사이다.

암기 포인트

지나친 상태는 형용사, 한계를 넘는 행동은 동사이다.

NoteBase

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 권력을 문화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사실 권력과 문화라는 두 단어에서 볼 때 어울리는 담론으로 승화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은 정치적 지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베버의 지배 개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베버에 따르면 권력은 타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러한 베버의 권력을 문화적으로 연결해 설명한 학자는 부르디외였다. 부르디외는 정당한 권력의 행사를 위해 대표자의 역할을 지적했다. 이는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을 권력의 정당한 행사자들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부르디외의 이 같은 권력 개념은 '대표자의 효과'이다. 이 개념은 그의 저서 『구별 짓기』의 「문화와 정치」 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 부르디외는 정치적 의견이 생산되는 양식에 관심을 두면서 대표자들을 통해 개인의 의견이 표현된다는 고전적 민주주의의 이론과 달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이 대표자들과의 관계에 의해 드러나는 왜곡된 의사소통체계로 인해 발생되는 '유용효과'를 보인다고 보았다. 즉 정치적 이슈나 정당정치의 후보자들에 대한 개별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들의 식견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계획이나 프로그램, 또는 정치인들의 신비적 이미지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부르디외의 대표자 효과는 정치의식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주체의 소외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 대표자 효과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국민들(유권자들)은 대표자 효과로 인해 정치적으로 문외한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들은 대표자들이 만들어낸 전문적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동일시하는 '허위의 동일시 효과'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이를 '정치적 물신숭배'라 했다.
>
> 지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지배자들의 심리적 동의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력양태에서 중요한 것은 지배자들, 부르디외의 표현에 따르면 대표자들을 신비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대표자들의 신비는 그들의 권력도용을 은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표자의 명령에 정당성을 얻게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대표자의 신분의 변형도 은폐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징적 권력으로서 대표자들을 드러나게 하는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상징적 권력은 인정을 전제로 하는 권력으로서 대표자들을 통해 행사되는 폭력의 양태를 오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① 베버에 따르면 권력은 자신과 타인의 이해관계의 일치라는 선의의 결과로 발생한다.

② 부르디외는 '대표자의 효과'의 권력개념을 설명하면서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 삼지 않았다.

③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은 대표자들을 통해 개인의 의견이 표현되지 않는다고 보며, 왜곡된 의사소통체계로 인해 발생되는 '유용효과'를 주장한다.

④ 부르디외가 주장한 대표자 효과는 국민들(유권자들)의 정치적 소외 상태와 관련이 있는 반면, 정치적 물신숭배는 국민들(유권자들)의 주체적인 정치참여 현실을 찬양한 것이다.

⑤ 부르디외는 대표자들을 신비와 연결시키는 것은 피지배자들의 심리적 동의를 이끌고, 대표자들의 명령에 정당성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5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르디외가 설명한 '대표자 효과'와 '정치적 물신숭배'의 의미를 지문의 진술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베버: 권력은 타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이다.
부르디외: 대표자가 정당한 권력 행사자로 인정될 때 권력이 성립한다고 보고, 대표자들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현상을 '대표자 효과'로 설명한다. 대표자를 신비화하여 권력 남용을 은폐하고 그 명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현상은 '정치적 물신숭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자신과 타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표현이 틀리다. 베버에 따르면 권력은 타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할 수 있는 힘이다.
② X —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표현이 틀리다. 부르디외는 피지배자들이 지배자를 정당한 권력 행사자로 인정할 때 대표자의 권력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③ X —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이 개인의 의견은 표현되지 않는다고 보며 유용효과를 주장했다'는 연결이 틀리다.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은 대표자를 통해 개인의 의견이 표현된다고 보지만, 부르디외는 대표자와의 관계 때문에 유권자의 판단이 왜곡되는 '유용효과'가 생긴다고 보았다.
④ X — '정치적 물신숭배가 주체적인 정치 참여 현실을 찬양했다'는 표현이 틀리다. 정치적 물신숭배는 국민이 대표자가 만든 전문적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동일시하는 허위의 동일시 효과이며, 정치의식의 부재와 정치 주체의 소외를 드러낸다.
⑤ O — 지문은 대표자를 신비와 연결하려면 피지배자의 심리적 동의가 필요하고, 그 신비가 권력 남용을 은폐하여 대표자의 명령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지문에 등장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주체나 평가 방향을 뒤바꾼 선지들이다. 특히 ③은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과 부르디외의 비판을 바꾸어 연결했고, ④는 소외를 비판하는 개념을 주체적 참여를 찬양하는 개념으로 뒤집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와 개념의 이름만 대조하지 않고, 누가 무엇을 주장했는지와 그 평가가 긍정인지 비판인지까지 확인한다. 부르디외의 대표자 효과는 유권자의 판단 왜곡, 정치적 물신숭배는 대표자의 신비화와 권력 남용의 은폐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르디외의 대표자 효과는 판단의 왜곡이고, 정치적 물신숭배는 대표자의 신비화와 권력의 정당화이다.

NoteBase

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어느새 환경 보존은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고, 이것이 다른 모든 과제를 압도하는 것도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

(나) 산업화 초기에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 예컨대 도시 오염의 확산과 경관의 파괴, 주민 건강의 악화 등은 우리로 하여금 무분별한 발전이 과연 정당한지 되묻게 했다.

(다) 환경 운동은 근대의 산업화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시작됐다.

(라) 그리고 이러한 반성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마구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 이 과정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당장 성장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① (다)-(라)-(가)-(나)-(마)
② (가)-(나)-(마)-(라)-(다)
③ (가)-(나)-(라)-(다)-(마)
④ (다)-(나)-(라)-(마)-(가)
⑤ (다)-(나)-(마)-(가)-(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환경 운동의 시작부터 오늘날의 상황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이러한 반성을 통해', '이 과정에서', '어느새' 같은 연결 표현을 바탕으로 글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1. (다) — 환경 운동이 근대 산업화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글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2. (나) — 산업화 초기의 도시 오염과 건강 악화를 근거로 무분별한 발전을 반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3. (라) — '그리고 이러한 반성을 통해'가 (나)의 반성을 이어 받아, 자연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제시한다.
4. (마) — '이 과정에서'가 앞선 환경 인식의 전개를 이어 받아, 성장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타났음을 덧붙인다.
5. (가) — '어느새'와 '오늘날'로 환경 보존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된 현재의 상황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왜 이 순서인가: (라)의 '이러한 반성'은 (나)의 무분별한 발전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고, (마)의 '이 과정'은 그 반성과 인식 변화의 과정을 가리키며, (가)는 '어느새'와 '오늘날'을 통해 그 결과에 해당하는 현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라)의 '이러한 반성'이 가리킬 내용이 앞에 없으므로 (다) 다음에 곧바로 (라)가 올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가)가 산업화 초기의 문제를 다룬 (나)보다 앞선 것도 부자연스럽다. 틀린 배열 '(다)-(라)-(가)-(나)-(마)'는 '(다)-(나)-(라)-(마)-(가)'로 고쳐야 한다.

② X — (가)의 '어느새'와 '오늘날'은 논의의 결과인 현재 상황이므로 첫머리에 올 수 없다. 또한 (다)의 환경 운동 시작이 맨 끝에 놓인 것도 시간 흐름에 어긋난다. 틀린 배열 '(가)-(나)-(마)-(라)-(다)'는 '(다)-(나)-(라)-(마)-(가)'로 고쳐야 한다.

③ X — (가)는 현재의 귀결이므로 첫머리가 아니라 마지막에 와야 한다. (라)의 '이러한 반성'도 (나)의 반성을 받은 뒤에 와야 하므로 (나)보다 앞설 수 없다. 틀린 배열 '(가)-(나)-(라)-(다)-(마)'는 '(다)-(나)-(라)-(마)-(가)'로 고쳐야 한다.

④ O — 환경 운동의 시작을 밝힌 (다), 산업화 초기의 문제와 반성을 제시한 (나), 그 반성으로 얻은 깨달음을 설명한 (라), 그 과정에서 나온 성장 중단 주장을 덧붙인 (마), 오늘날의 상황으로 마무리한 (가)의 순서가 자연스럽다.

⑤ X — (마)의 '이 과정에서'가 가리키는 반성과 인식 변화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나) 바로 뒤에 (마)를 둘 수 없다. (가)의 현재 상황 뒤에 다시 (라)의 깨달음이 나오는 것도 시간 흐름을 거스른다. 틀린 배열 '(다)-(나)-(마)-(가)-(라)'는 '(다)-(나)-(라)-(마)-(가)'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환경 운동의 시작'이라는 말만 보고 (다)를 찾는 데서 멈추면 중간 순서를 바꾸기 쉽다. 정답을 가르는 핵심은 (라)의 '이러한 반성'이 (나)의 '무분별한 발전이 정당한지 되묻게 했다'를 받는다는 점, (마)의 '이 과정'이 그 뒤의 인식 변화 과정에 이어진다는 점, (가)의 '어느새·오늘날'이 마지막 현재 상황을 표시한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배열 문제에서는 먼저 도입과 결말을 찾고, 지시 표현이 가리키는 앞 문장을 연결한다. 이 글은 '시작했다'가 있는 (다)를 출발점으로, '이러한 반성'이 있는 (라)를 (나) 뒤에, '이 과정에서'가 있는 (마)를 그다음에, '어느새 · 오늘날'이 있는 (가)를 마지막에 배치한다.

암기 포인트

시작은 '시작했다', 연결은 '이러한 · 이 과정', 결말은 '어느새 · 오늘날'로 잡는다. 순서는 (다)-(나)-(라)-(마)-(가)이다.

NoteBase

8. 다음에 쓰인 외래어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된 것을 고르면?

① 오랜만에 우리 랍스터를 먹으러 갑시다.
② 나는 반려견으로 달마시안을 키우고 싶다.
③ 날이 너무 더우니 어디 시원한 까페에 들어갈까요?
④ 어제 친구와 남이섬에 가서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었다.
⑤ 생일을 맞은 친구를 위해서 맛있는 케잌을 구워 봤어요.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올바른 표기와 잘못된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는 원어의 발음을 바탕으로 외래어 표기법과 이미 굳어진 표준 표기에 따라 적는다. 이 문항의 표준 표기는 '랍스터, 달마티안, 카페, 메타세쿼이아, 케이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랍스터'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달마시안'이다. 개 품종을 가리키는 말은 '달마티안'으로 적는다.
③ X — 틀린 표현은 '까페'이다. 외래어 표기에서는 이 말의 첫소리를 된소리 'ㄲ'으로 적지 않으므로 '카페'가 옳다.
④ X — 틀린 표현은 '메타세콰이어'이다. 나무 이름의 표준 표기는 '메타세쿼이아'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케익'이다. 'cake'의 표준 표기는 '케이크'이다.

오답 포인트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달마시안, 까페, 메타세콰이어, 케익'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표준 표기라고 판단하기 쉽다. 특히 익숙한 관용 표기와 외래어 표기법상 표준형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외래어를 평소의 사용 빈도가 아니라 사전에 등재된 표준형과 대조한다. 된소리 표기, 모음 결합, 받침 유무가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랍스터·달마티안·카페·메타세쿼이아·케이크가 표준 표기이다.

NoteBase

9. 다음 시의 밑줄 친 어구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이 나타난 것은?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중략)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緘默(함묵)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遠雷(원뢰)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바위> -유치환-

① 남몰래 흘리는 눈물
② 창문을 두드리는 낙숫물 소리
③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④ 찬란한 슬픔의 봄
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부여하는 의인법을 찾는 문제이다. 밑줄 친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는 뒤의 '꿈꾸어도'와 연결되어, 바위가 구름과 원뢰를 꿈꾸는 존재처럼 표현된다.

핵심 개념

의인법: 사람이 아닌 사물·자연·관념을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고 느끼는 존재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시에서는 바위에 '꿈꾸다'라는 인간의 행위를 부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눈물을 흘리다'는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의인법이 아니다. 틀린 판단을 바로잡으면, 이 표현은 남몰래 우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다.
② O — 낙숫물에 사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행동을 부여했으므로 의인법이다. 바위가 구름과 원뢰를 '꿈꾸는' 것으로 표현한 밑줄 부분과 같은 방식이다.
③ X — '파도야'라고 자연물을 직접 부르는 돈호법과 '어쩌란 말이냐'라는 설의적 물음이 중심이다. 올바르게는 파도를 사람처럼 행동하게 한 의인법이 아니라 파도에 말을 거는 표현이다.
④ X — 서로 어울리지 않는 '찬란한'과 '슬픔'을 결합한 역설적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모순되어 보이는 말을 통해 슬픔 속의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다.
⑤ X — '봄은 오는가'라는 의문형으로 현실에 대한 절망과 봄을 향한 염원을 강조한 설의적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들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의인법이 아니라 답을 요구하기보다 의미를 강조하는 물음이다.

오답 포인트

밑줄이 '구름'과 '원뢰'라는 자연물을 제시하므로 단순히 시각적·청각적 심상만 찾기 쉽다. 그러나 뒤의 '꿈꾸어도'까지 문장 성분을 연결하면 바위에 인간의 행위를 부여한 의인법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물이나 사물이 나온 뒤의 서술어를 확인한다. 그 대상이 '꿈꾸다, 웃다, 울다, 속삭이다, 두드리다'처럼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이면 의인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바위가 꿈꾸고, 낙숫물이 두드린다.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처럼 행동하면 의인법이다.

NoteBase

10. 다음은 조선 전기 문신 정극인이 지은 <상춘곡>이라는 가사의 일부이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 구경 가쟈스라. 踏靑(답청)으란 오눌 ᄒᆞ고, 浴沂(욕기)란 來日(내일)ᄒᆞ새. 아춤에 採山(채산)ᄒᆞ고, 나조히 釣水(조수)ᄒᆞ새. 곳 괴여 닉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淸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樽中(준중)이 뷔엿거든 날ᄃᆞ려 알외여라. 小童(소동) 아히ᄃᆞ려 酒家(주가)에 술을 믈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완보)ᄒᆞ야 시냇ᄀᆞ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흔 믈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淸流(청류)를 굽어보니, 떠오ᄂᆞ니 桃花(도화)ㅣ로다. 武陵(무릉)이 갓갑도다. 져 ᄆᆡ이 긘 거인고. 松間 細路(송간 세로)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나 구름 소긔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려 잇닉. 煙霞日輝(연하 일휘)는 錦繡(금수)를 재폇는 ᄃᆞᆺ.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빗도 有餘(유여)홀샤. 功名(공명)도 날 ᄭᅴ우고, 富貴(부귀)도 날 ᄭᅴ우니, 淸風明月(청풍 명월) 外(외)예 엇던 벗이 잇ᄉᆞ올고. 簞瓢陋巷(단표 누항)에 흣튼 혜음 아니 ᄒᆞ닉. 아모타, 百年行樂(백년 행락)이 이만ᄒᆞᆫ들 엇지ᄒᆞ리.
>
> 정극인, <상춘곡>

① 이런 글의 갈래를 '서정 가사', '정격 가사', '양반 가사'라고 한대. 서정적인 내용을 정해진 격식에 따라서 양반이 지어서 그런 건가 봐.

② 맞아. 가사는 길게 쓴 시조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 봐. 그래서 '운문체'이기도 하고 '가사체'이기도 한다고 해.

③ 어디 보자. 글 내용으로 볼 때 주제는 봄의 완상(玩賞)과 안빈낙도(安貧樂道)가 맞겠지?

④ 그렇지. 이 글엔 설의법, 의인법, 풍유법, 대구법, 직유법 등 여러 표현 기교를 사용했네.

⑤ 조선 시대 사대부 가사의 작품으로 송순의 <면앙정가>와 함께 은일 가사라고 불리기도 한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극인의 「상춘곡」에 나타난 가사의 갈래적 특징, 주제, 표현법, 문학사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가사는 4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생각과 정서를 길게 풀어내는 운문 문학이다. 「상춘곡」은 자연 속에서 봄 경치를 즐기며 안빈낙도하는 사대부의 삶을 노래한 서정적 정격 가사이자 은일 가사이다. 풍유법은 본뜻을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대상이나 이야기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상춘곡」은 사대부가 일정한 율격과 형식에 따라 자연을 즐기는 정서를 노래한 작품이므로 서정 가사, 정격 가사, 양반 가사로 볼 수 있다.
② O — 가사는 시조와 마찬가지로 4음보 율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내용을 길게 이어 가는 운문이며, 그 문체를 가사체라고 한다.
③ O — 화자는 봄 경치를 완상하면서 술과 풍류를 즐기고 공명과 부귀에서 벗어난 삶을 만족스럽게 여긴다. 따라서 주제는 봄의 완상과 안빈낙도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풍유법'이다. '금수를 재폈는 듯'의 직유법,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의 의인법과 대구법, '봄빛도 유여할샤'의 설의적 표현 등은 확인되지만, 작품의 본뜻을 다른 대상이나 이야기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풍유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이 글에는 설의법, 의인법, 대구법, 직유법 등이 사용되었다.'이다.
⑤ O — 「상춘곡」은 조선 시대 사대부가 속세의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송순의 「면앙정가」와 함께 대표적인 은일 가사로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실제로 쓰인 여러 표현법 사이에 쓰이지 않은 '풍유법'을 끼워 넣었다. 풍경을 비유적으로 묘사했다는 사실만으로 풍유법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풍유법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겉으로 제시한 대상이나 이야기 뒤에 별도의 본뜻을 숨기는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법을 묻는 선지는 작품 속 근거 구절과 하나씩 대응한다. '듯'은 직유, 사람이 아닌 공명·부귀가 '꺼린다'고 한 것은 의인,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대구로 판단한다. 겉이야기와 속뜻의 이중 구조가 확인되지 않으면 풍유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상춘곡」은 봄 경치의 완상과 안빈낙도를 노래한 사대부의 정격·은일 가사이며, 직유·의인·대구·설의는 있지만 풍유는 없다.

NoteBase

11.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은?

<보 기>

우리는 그 회사에 원자재를 대고 있습니다.

① 그 친구는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다.
② 영수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회사에 결근했다.
③ 그 녀석이 숨어 있는 곳을 바른 대로 대라.
④ 네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는 내가 대마.
⑤ 아버지는 논에 물을 대러 나가셨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다의어 '대다'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원자재를 대고'는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마련하여 준다는 뜻이다.

핵심 개념

'대다'는 문맥에 따라 '닿게 하다', '이유나 구실을 내세우다', '사실을 말하다', '돈이나 물건을 마련하여 주다', '물이 흐르도록 끌어오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대다'의 목적어와 문장 전체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벽에 등을 대고'의 '대다'는 등을 벽에 닿게 한다는 뜻이다. <보기>와 같은 뜻으로 고치면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대고'처럼 써야 한다.
② X — '핑계를 대고'의 '대다'는 핑계를 이유나 구실로 내세운다는 뜻이다. <보기>와 같은 뜻의 표현은 '비용을 대고' 또는 '물품을 대고'이다.
③ X — '숨어 있는 곳을 바른 대로 대라'의 '대다'는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거나 밝힌다는 뜻이다. <보기>와 같은 뜻으로 고치면 '그 회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대라'처럼 써야 한다.
④ O — '모든 학비는 내가 대마'의 '대다'는 학비를 마련하여 부담한다는 뜻이다.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마련하여 준다는 <보기>의 의미와 같다.
⑤ X — '논에 물을 대러'의 '대다'는 물이 논으로 흐르도록 끌어온다는 뜻이다. <보기>와 같은 뜻으로 고치면 '농사에 필요한 비용을 대러'처럼 써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의 '물을 대다'는 무언가를 공급한다는 느낌이 있어 <보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물이 논으로 흐르도록 끌어오는 동작을 뜻한다. 반면 ④는 학비라는 돈을 마련하여 부담한다는 뜻이므로 <보기>와 정확히 대응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대다'와 함께 쓰인 목적어를 확인한다. 돈·비용·학비·물품을 마련해 주는 문맥이면 <보기>의 뜻이고, 신체를 닿게 하거나 핑계를 내세우거나 사실을 말하거나 물을 끌어오는 문맥이면 다른 뜻이다.

암기 포인트

원자재를 대다 = 물품을 마련해 주다 = 학비를 대다.

NoteBase

12. 밑줄 친 단어 중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사춘기 소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군대까지 다녀온 나이배기였다.
② 봄에 산란을 위해 서해를 찾아오는 알박이 조기는 특히 맛이 좋다.
③ 철수는 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는 언덕배기를 힘겹게 올라갔다.
④ 오이를 쪼개 가지고 부추 양념해서 무쳐서 넣는 것이 오이소박이란다.
⑤ 아들의 얼굴이 아버지와 판박이로군요.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박이'와 '-배기'의 의미를 구별하여 올바른 표기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박이'는 무엇이 박혀 있거나 박아 넣었다는 뜻이 살아 있을 때 쓰인다. '-배기'는 어떤 것이 차 있거나 그 나이 · 그런 물건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 쓰이며, '언덕배기'처럼 굳어진 표기도 있다. 따라서 알이 들어 배가 부른 생선은 '알배기'라고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나이배기'는 나이가 들어 있거나 차 있다는 뜻으로 '-배기'를 쓰므로 맞는 표기이다.
② X — '알박이'가 틀린 표현이다. 알이 박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알이 들어 배가 부른 생선을 뜻하므로 '알배기 조기'라고 써야 한다.
③ O — '언덕배기'는 언덕의 꼭대기나 언덕 위를 뜻하는 굳어진 말로 '-배기'를 쓰므로 맞는 표기이다.
④ O — '오이소박이'는 오이에 소를 박아 넣은 김치이므로 '박다'의 뜻이 살아 있는 '-박이'를 쓰는 것이 맞다.
⑤ O — '판박이'는 판에 박아 낸 것처럼 매우 닮았다는 뜻이므로 '-박이'를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포인트

'알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 보고 알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여 ②의 '알박이'를 맞는 표기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알이 들어 배가 부른 생선이라는 뜻에서는 '알배기'가 표준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박다'의 뜻이 실제로 남아 있으면 '-박이'를 쓰고, 무엇이 차 있거나 나이 · 그런 물건을 나타내면 '-배기'를 쓴다. 다만 '언덕배기'처럼 굳어진 표기는 단어 자체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소를 박은 오이는 '오이소박이', 알이 밴 생선은 '알배기'이다.

NoteBase

13. 다음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운명의 회오리도 느껴졌다. 한 발 한 발 운명을 뒤따라 ①걸어보니 어느덧 운명 한가운데 ②무단히 자리한 것이다. 운명은 ③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나를 몰아갔다. 이 회오리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다. 회오리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④갈갈이 찢겨나간다. 회오리를 가라앉히는 유일한 길은 ⑤같이 회전하는 것이다. 나 스스로 돌지 않으면 언젠가 한꺼번에 크게 터지거나 미쳐버리고 만다.

① 본용언 '걷다'의 활용형 '걸어'와 보조용언 '보다'의 활용형 '보니'가 이어진 단어 연결인데, <한글 맞춤법> 제47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보기처럼 붙여 쓰는 것은 띄어쓰기에 어긋나지 않는다.

② 이 부사는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라는 의미인데, 부사를 만드는 맨 마지막 음절 접미사가 [이]로만 소리 나기 때문에 현재의 보기를 '무단이'로 고쳐야 한다.

③ 관형사 '한'과 의존명사 '치'가 연속된 명사구이므로 현재의 보기를 '한 치'처럼 띄어 써야 한다.

④ 이 부사는 '갈기갈기 찢어진 모양'을 나타내는데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보기를 고쳐서 '갈가리'로 표기해야 한다.

⑤ 실제 발음은 첫째 음절 받침이 구개음화되어 [가치]로 소리 나지만, 구개음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한글 맞춤법>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보기처럼 표기하는 것이 맞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부사의 표기,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어원이 불분명한 말의 표기, 구개음화와 표기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앞말과 띄어 쓰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소리가 달라져도 한글 맞춤법에서 그 음운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사의 끝 음절은 단순히 발음만으로 '이'와 '히'를 정하지 않고 그 말의 형태와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걸어 보니’는 본용언 ‘걷다’의 활용형 ‘걸어’와 보조 용언 ‘보다’의 활용형 ‘보니’가 이어진 구성이다. 원칙적으로 띄어 쓰지만 ‘걸어보니’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므로 현재 표기가 맞다.
② X — ‘무단히’를 ‘무단이’로 고쳐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 부사는 ‘무단히’로 적는 말이므로 현재 표기가 맞다. 올바르게는 ‘현재의 보기처럼 ‘무단히’로 표기해야 한다’이다.
③ O — ‘치’는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관형사 ‘한’과 띄어 ‘한 치’로 써야 한다.
④ O — ‘갈기갈기 찢어진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는 ‘갈가리’로 적는다. 따라서 ‘갈갈이’가 아니라 ‘갈가리 찢겨 나간다’로 고쳐야 한다.
⑤ O — ‘같이’는 구개음화되어 [가치]로 발음되지만 이 발음 변화를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음과 달리 ‘같이’로 적는 것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②는 부사 끝소리가 [이]처럼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이’라고 적게 유도한다. ‘-이/-히’ 표기는 실제 발음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이 문맥의 올바른 표기는 ‘무단히’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띄어쓰기 문제인지 단어 자체의 표기 문제인지 구분한다. 보조 용언은 원칙적 띄어쓰기와 허용되는 붙여쓰기를 함께 확인하고,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이/-히’ 부사와 음운 변동은 들리는 소리만 따르지 말고 맞춤법상 형태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걸어 보니(걸어보니도 허용), 한 치, 갈가리, 같이가 맞고 ‘무단히’도 그대로 맞다.

NoteBase

14. 다음 밑줄 친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

> 그러나,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
> 사실상 모든 예술·학문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 그것은 인간에게만 또한 봉사하고 있다. ㉠ 인간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문과학은 인간의 어느 한 면만을 연구하고 관찰한다. ㉡ 사회학은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종합한다. ㉢ 문학은 어떤 개인이 인간의 한 측면만을 붙잡고 씨름함으로써 인간을 피상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파악할지도 모를 단점을 막고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게 한다. ㉣ 인간이 단편적으로 파악될 때 억지가 생겨나고 불건강한 사회가 형성된다. ㉤ 문학은 그러한 불균형을, 인간을 총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정시킨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접속어 '그러나'가 나타내는 대조 관계와, 뒤 문장이 앞의 일반 진술을 구체화하는 관계를 파악하여 문장의 위치를 정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인문과학은 인간의 어느 한 면을 연구하고 관찰한다.
2. 사회학과 심리학은 각각 인간과 사회의 관계,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고 종합한다.
3. 그러나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4. 이어지는 문장은 문학이 한 개인의 한 측면을 깊이 다룸으로써 오히려 인간을 피상적·단편적으로 파악하는 일을 막고 총체적으로 보게 한다고 설명한다.

삽입 문장은 인문과학의 부분적 접근과 예술의 총체적 접근을 대조한 뒤, 문학이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ㄷ에 들어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 삽입 위치 ㄱ은 앞의 '모든 예술·학문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포괄적 진술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인문과학의 부분적 접근에 관한 설명이 끝난 뒤인 ㄷ에 넣어야 한다.

② X
틀린 부분: 삽입 위치 ㄴ은 '인문과학은 인간의 어느 한 면을 연구한다'라는 일반 진술과 사회학·심리학의 구체적 예시 사이를 끊는다.
올바르게는: 사회학과 심리학의 예시까지 제시된 뒤인 ㄷ에 넣어야 한다.

③ O
ㄷ 앞에서는 사회학과 심리학이 인간의 특정 측면을 분석한다고 설명하고, 삽입 문장은 '그러나'로 이를 예술의 총체적 접근과 대조한다. 이어지는 문장은 문학이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게 하는 방식을 구체화하므로 흐름이 자연스럽다.

④ X
틀린 부분: 삽입 위치 ㄹ의 앞 문장은 이미 문학이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게 한다고 말하므로, 같은 내용을 다시 제시하면서 '그러나'로 대조할 대상이 없다.
올바르게는: 문학의 총체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인 ㄷ에 넣어야 한다.

⑤ X
틀린 부분: 삽입 위치 ㅁ은 예술의 총체적 성격을 너무 늦게 제시하여, 앞에서 이미 나온 문학의 총체적 기능과 내용이 중복된다. 또한 '그러한 불균형'이 바로 앞의 단편적 파악에서 생긴 문제를 가리키는 연결도 약해진다.
올바르게는: 부분적 접근과 총체적 접근의 대조가 처음 필요한 ㄷ에 넣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그러나'가 있으므로 단순히 반대되는 내용이 보이는 곳만 찾으면 ㅁ에 끌릴 수 있다. 이 문장은 앞의 인문과학에 대한 설명 전체와 대조되어야 하고, 뒤의 문학에 대한 설명을 이끄는 일반 진술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조와 구체화가 동시에 성립하는 ㄷ이 적절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먼저 접속어가 요구하는 앞 문맥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삽입 문장 뒤의 내용이 그 문장을 예시·부연·구체화하는지 살핀다. 앞뒤 양쪽의 연결이 모두 자연스러운 한 지점을 선택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인문과학의 부분적 접근 → 그러나 예술의 총체적 접근 → 문학의 구체적 기능 순서이다.

NoteBase

15. 다음 고시조들은 일부 표현을 현대식 어투로 다듬은 것이다. 이들 중 그 성격(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를 고르면?

① 어져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② 철령 높은 봉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를 비 삼아 뿌려다가
임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③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여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④ 이화우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은 오락가락 하노라.

⑤ 묏 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옵소서
밤비에 새잎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고시조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이 연인인지 임금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정은 이별한 연인을 그리워하는 정서이고, 연군지정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충정을 드러내는 정서이다.
②의 '고신원루'와 '구중심처'는 화자가 외로운 신하이며 그리움의 대상이 궁궐 깊숙이 있는 임금임을 보여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보내고 그리는 정’에서 화자는 떠나보낸 임을 그리워한다. 이 임은 이별한 연인이므로 ③·④·⑤와 같은 남녀 간의 연정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그리움의 대상을 연인으로 판단한다.

② O
‘고신원루’는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구중심처’는 임금이 있는 깊은 궁궐을 뜻한다. 따라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임금이며, 연군지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다르다.

③ X
화자는 동짓달의 긴 밤을 잘라 두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에 펼치고 싶어 한다.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대상은 연인이므로 남녀 간의 연정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그리움의 대상을 연인으로 판단한다.

④ X
‘울며 잡고 이별한 임’과 서로를 생각하는 정황은 멀리 떨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임금에 대한 충정이 아니라 남녀 간의 연정이므로, 올바르게는 그리움의 대상을 이별한 연인으로 판단한다.

⑤ X
화자는 버들가지를 꺾어 임에게 보내며 새잎이 나면 자신을 보듯 여겨 달라고 한다. 이는 멀리 있는 연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연정이므로, 올바르게는 그리움의 대상을 연인으로 판단한다.

오답 포인트

모든 작품에 ‘임’이 나타난다는 공통점만 보면 대상의 성격 차이를 놓치기 쉽다. 특히 ②의 ‘임’을 일반적인 연인으로 오해하지 않고, ‘고신’과 ‘구중심처’를 근거로 임금으로 판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이라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변 시어를 확인한다. 이별·밤·꿈·버들처럼 남녀의 만남과 이별을 나타내는 시어가 중심이면 연인이고, 신하·궁궐·충정과 관련된 시어가 중심이면 임금이다.

암기 포인트

②의 ‘고신＋구중심처’는 신하가 궁궐의 임금을 그리는 연군지정이다.

NoteBase

16. 다음 관용적 표현 중 뜻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떡 해 먹을 집안: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분란이 끊이지 않는 집안
② 이골이 나다: 지긋지긋해서 진절머리가 나다.
③ 벙어리 재판: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움
④ 반죽이 좋다: 노여움이나 부끄러움을 타지 아니하다.
⑤ 아퀴를 짓다: 어떤 일의 가부를 확실하게 결정하여 마무리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관용적 표현의 실제 뜻을 알고,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의 뜻과 혼동하지 않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용적 표현은 둘 이상의 말이 결합하여 각 단어의 사전적 뜻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뜻으로 굳어진 표현이다. '이골이 나다'는 같은 일을 여러 번 겪어 매우 익숙해졌다는 뜻이고, '진저리가 나다'는 지긋지긋하여 진절머리가 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떡 해 먹을 집안'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분란이 끊이지 않는 집안을 이르는 말이므로 풀이가 옳다.
② X — 틀린 부분은 '지긋지긋해서 진절머리가 나다'이다. '이골이 나다'는 같은 일을 여러 번 겪어 매우 익숙해지다는 뜻이다. 지긋지긋하여 진절머리가 난다는 뜻의 표현은 '진저리가 나다'이다.
③ O — '벙어리 재판'은 양쪽의 말을 제대로 밝히기 어려워 시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를 이르는 말이므로 풀이가 옳다.
④ O — '반죽이 좋다'는 노여움이나 부끄러움을 잘 타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풀이가 옳다.
⑤ O — '아퀴를 짓다'는 일의 가부를 확실하게 결정하여 마무리한다는 뜻이므로 풀이가 옳다.

오답 포인트

②의 '이골이 나다'를 부정적 감정인 '진저리가 나다'와 혼동하기 쉽다. '이골이 나다'의 핵심은 싫증이 아니라 반복 경험으로 생긴 익숙함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용 표현을 감정과 숙련의 뜻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익숙해짐'이면 '이골이 나다', '지긋지긋함'이면 '진저리가 나다'로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이골은 반복해서 익숙함, 진저리는 지긋지긋함이다.

NoteBase

17. 다음 시를 읽고 화자의 심정/상황(이를 통해 드러나는 시인의 의도까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가을의 기도

-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肥沃)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百合)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① 1연을 보면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잖아? 이걸 보면 이 시의 화자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가 봐.
② 2연에서 가을에는 꼭 사랑하게 해 달라고 한 것을 보니 이성 간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인가 봐.
③ 3연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하고픈 시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
④ 이 시에는 시간적 · 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
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갈망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반복되는 소망의 내용과 시적 이미지를 근거로 화자의 심정과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적 화자의 심정은 작품에 직접 나타난 말과 이미지의 문맥을 근거로 판단한다. 이 시에서 화자는 가을에 '기도', '사랑', '홀로 있음'을 이루기를 바라며, 겸허한 성찰과 사랑, 고독 속의 자유로운 영혼을 소망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본 부분이 잘못되었다. 여기서 '겸허한 모국어'는 낙엽이 지는 가을에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고 성찰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시어이며, 올바르게는 겸허한 언어와 마음으로 내면을 채우고 싶다는 소망이다.

② X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를 '이성 간의 사랑에 목마르다'고 한정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작품에는 사랑의 대상을 이성으로 특정하거나 사랑에 굶주렸다는 근거가 없으며, 올바르게는 한 대상에게 온전하고 순수한 사랑을 바치며 그 결실을 가꾸고 싶다는 소망이다.

③ O

화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라고 기원하고, 자신의 영혼이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의 까마귀처럼 홀로 서는 모습을 그린다. 이는 세속적 얽매임을 벗어나 고독 속에서 자유로운 영혼에 이르고 싶은 소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X

'시간적·공간적 배경의 변화가 잘 나타난다'는 판단이 잘못되었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세 연 모두 '가을'로 유지되며, 3연의 바다·골짜기·마른 나뭇가지는 영혼의 여정을 비유적으로 보여 주는 이미지이다. 올바르게는 동일한 가을을 배경으로 화자의 소망이 기도, 사랑, 홀로 있음으로 전개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X

화자가 '고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화자는 오히려 '호올로 있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고독을 자발적으로 소망한다. 올바르게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유로운 영혼에 이르고자 하는 갈망을 드러낸다고 보아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시어 하나를 일상적 의미로만 좁혀 해석하면 ①과 ②처럼 근거 없는 의미를 덧붙이게 된다. 또한 3연의 '호올로'를 부정적 외로움으로 보면 ⑤를 고르기 쉽지만, 이 시에서 홀로 있음은 화자가 피하려는 상태가 아니라 직접 기원하는 정신적 자유와 성찰의 상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자의 심정·태도를 묻는 선지는 먼저 반복되는 서술어와 소망 표현을 확인하고, 선지의 해석이 작품 안의 시어로 뒷받침되는지 대조한다. 작품에 없는 대상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덧붙인 선지는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도하게 하소서—사랑하게 하소서—호올로 있게 하소서'는 겸허한 성찰, 사랑의 결실, 고독 속 자유를 향한 소망이다.

NoteBase

18. 다음은 소설의 한 부분이다. 내용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때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곳은?

> 저녁때가 돼서야 비가 멎었다. ㉠신둥이는 또 미리부터 두 기와집 새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구유에 남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이날 저녁은 작은 동장네 바둑이가 입맛을 잃었는지 퍽이나 많은 밥을 남기고 있었다. ㉢다음 날은 아주 깨끗이 개인 봄날이었다. ㉣이날도 신둥이는 꼭두새벽부터 두 집 새를 오고 가고 해서야 구유에 남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이날 신둥이의 걸음은 거의 절룩거리지 않았다. 방앗간으로 돌아가자 볕 잘 드는 곳에 엎디어 해바라기를 시작했다. ㉤늦은 조반때쯤 해서 이쪽으로 오는 인기척 소리가 나더니, 두 동장네 절가(머슴)가 볏섬을 지고 나타났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문단은 시간·장소·등장인물·사건의 초점이 달라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날'의 신동이 행동이 이어지다가 새로운 인기척과 인물이 등장하는 ㅁ에서 셋째 문단이 시작된다.

핵심 개념

문단은 하나의 중심 내용으로 묶인 문장들의 단위이다. 첫째 문단은 비가 멎은 저녁에 신동이가 남은 밥을 얻어먹은 일, 둘째 문단은 다음 날 신동이가 밥을 얻어먹고 햇볕을 쬔 일, 셋째 문단은 인기척이 난 뒤 두 동장네 절가가 나타난 일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문단의 경계는 ㄷ과 ㅁ이며, 셋째 문단은 ㅁ에서 시작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ㄱ X
셋째 문단의 시작점으로 본 것이 틀리다. ㄱ은 비가 멎은 저녁이라는 같은 시간대에서 신동이가 밥을 구한 일을 이어 말하므로 첫째 문단 안에 놓인다. 올바르게는 ㅁ이 셋째 문단의 시작점이다.

② ㄴ X
셋째 문단의 시작점으로 본 것이 틀리다. ㄴ은 신동이가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던 까닭을 '작은 동장네 바둑이가 많은 밥을 남겼다'고 보충하므로 앞 내용과 한 문단으로 묶인다. 올바르게는 ㅁ이 셋째 문단의 시작점이다.

③ ㄷ X
셋째 문단의 시작점으로 본 것이 틀리다. ㄷ의 '다음 날'에서 시간이 바뀌므로 이곳은 둘째 문단의 시작점이다. 올바르게는 둘째 문단이 ㄷ에서, 셋째 문단이 ㅁ에서 시작된다.

④ ㄹ X
셋째 문단의 시작점으로 본 것이 틀리다. ㄹ은 ㄷ에서 제시한 '다음 날' 신동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어 설명하므로 둘째 문단 안에 놓인다. 올바르게는 ㅁ이 셋째 문단의 시작점이다.

⑤ ㅁ O
'늦은 조반때쯤'으로 시간이 조금 흐르고, 신동이의 행동에서 인기척과 두 동장네 절가의 등장으로 사건의 초점이 바뀐다. 따라서 ㅁ에서 셋째 문단이 시작된다.

오답 포인트

'다음 날'이라는 시간 표지만 보고 ㄷ을 셋째 문단의 시작으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세 문단으로 나누어야 하므로 ㄷ은 저녁 장면에서 다음 날 장면으로 넘어가는 둘째 문단의 시작이고, ㅁ은 새로운 인기척과 인물의 등장으로 사건이 전환되는 셋째 문단의 시작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시간·장소가 크게 바뀌는 지점을 찾고, 이어 등장인물이나 중심 사건이 새롭게 전환되는 지점을 찾는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씩 붙여 보아 세 덩어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문단 경계는 시간 전환과 사건 초점의 전환을 함께 본다. 이 글은 '저녁의 신동이 → 다음 날의 신동이 →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나뉜다.

NoteBase

19.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19세기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심각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이 많았다. 극도로 불결한 환경과 빈곤, 과밀한 인구, 노동 시간의 연장에 따른 영양실조 등이 겹쳐 결핵과 디프테리아, 천연두, 성홍열을 비롯한 갖가지 질병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은 시골 사람들이 장터에 가지고 나온 약초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사망률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아마도 백신이나 다른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생과 식사 등 일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 오늘날 산업화한 국가의 주된 사망 요인은 합성 화학물질, 방사선이나 납, 살충제 등의 오염 물질, 기름진 음식과 담배, 술, 운동 부족으로 빚어진 심장 질환과 암 등이다. 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종양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이지만,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는 것이다.

① 19세기 유럽의 노동자는 주로 약초 처방에 의존해서 질병을 다루었다.
② 19세기 말에 유럽의 사망률이 떨어지게 된 것은 생활환경의 향상에 그 원인이 있다.
③ 현대 선진국의 주된 사망 요인의 하나는 암이다.
④ 현대 산업화한 국가에서 오염 물질은 주된 사망 요인을 야기하고 있다.
⑤ 암을 일으키는 근원적 원인은 환경이라기보다 유전자에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글에 명시된 사실과 선지의 인과 관계가 일치하는지, 특히 암의 직접적 원인과 궁극적 원인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접적 원인은 현상을 바로 일으키는 원인이고, 궁극적 원인은 그 직접적 원인이 생기도록 만든 더 근본적인 배경이다. 이 글은 암의 직접적 원인을 종양을 만들어 내는 유전자로, 궁극적 원인을 사람을 둘러싼 환경으로 구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19세기 유럽의 노동자들은 치료비가 없어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시골 사람들이 장터에 내놓은 약초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② O — 글은 19세기 말 사망률이 떨어진 까닭을 백신이나 의학의 발달보다 위생과 식사 등 일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에서 찾는다.
③ O — 글은 현대 산업화한 국가의 주된 사망 요인으로 심장 질환과 암 등을 제시한다. 따라서 암이 주된 사망 요인의 하나라는 내용은 글과 일치한다.
④ O — 합성 화학 물질, 방사선, 납, 살충제 등의 오염 물질은 현대 산업화한 국가의 주된 사망 요인 가운데 일부로 제시되어 있다.
⑤ X — 틀린 부분은 '근원적 원인은 환경이라기보다 유전자에 있다'이다. 글은 유전자를 암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지만,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있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암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은 유전자이지만, 궁극적 원인은 환경에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글에 함께 제시된 '유전자'와 '환경'의 역할을 뒤바꾼 선지이다. 유전자가 암과 관련 있다는 사실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직접적'과 '궁극적'이라는 원인의 층위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의 핵심 명사뿐 아니라 원인·결과, 직접적·궁극적, 이전·이후와 같은 관계 표현까지 본문과 대조한다. 두 요소가 모두 본문에 있어도 그 관계가 뒤바뀌면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암의 직접적 원인은 유전자, 궁극적 원인은 환경이다.

NoteBase

20. 다음 글의 ㉠, ㉡,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최저임금제도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개선을 목적으로 국가가 결정한 임금에 법률상의 효력을 부여하여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토록 강제하여 그 이하의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국가가 임금결정에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결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한 임금결정의 원칙에 대한 (㉡)이라고 할 수 있다.
>
>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 맡겨 놓을 때에는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근로자 보호정책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임금에 대한 간섭정책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채택의 논리에서 구해진다.
>
> 이에 국가는 최소한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우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의 임금결정에 (㉠)하는 행위이며, 이는 헌법 제32조의 근로권에 근거하여 나타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	㉢
①	개입	수정	대등한
②	개입	묵인	불평등한
③	추종	수정	대등한
④	추종	묵인	불평등한
⑤	개입	수정	불평등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앞뒤 문장의 논리 관계와 서술 대상의 성격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어휘를 고르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개입은 어떤 일에 끼어들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수정은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이며, 대등하다는 것은 서로 지위나 힘이 동등하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의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자유로운 교섭 원칙을 수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개별 근로자는 사용자와 힘이 같지 않으므로 대등한 교섭관계를 이루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국가는 임금 결정에 개입하고, 최저임금제는 자유로운 교섭에 따른 임금 결정 원칙을 수정한다. 또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맥이므로 세 어휘가 모두 알맞다.
② X — '묵인'과 '불평등한'이 틀렸다. 국가는 낮은 임금을 모른 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결정에 개입하므로 ㉡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는 '불평등한 교섭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교섭관계'이다.
③ X — '추종'이 틀렸다. 국가는 노사의 임금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최저임금을 정하여 임금 결정에 '개입'한다. 따라서 '개입-수정-대등한'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추종', '묵인', '불평등한'이 모두 틀렸다. 국가는 임금 결정에 '개입'하고 자유 교섭 원칙을 '수정'하며,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대등한' 교섭관계이다.
⑤ X — '불평등한'이 틀렸다. 글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힘이 불균형하므로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은 '대등한'이 되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글의 현실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평등이라는 점에만 끌리면 ㉢에 '불평등한'을 넣기 쉽다. 그러나 빈칸 뒤에 '이루어질 수 없고'라는 부정 표현이 있으므로, 현실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관계인 '대등한 교섭관계'가 들어가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만 보지 않고 그 뒤의 긍정·부정 표현까지 연결한다. '국가가 최저임금을 강제한다'에서는 개입, '자유 교섭 원칙에 변화를 준다'에서는 수정, '힘의 차이 때문에 성립하지 못한다'에서는 대등한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최저임금제는 국가의 개입, 자유 교섭 원칙의 수정, 대등한 교섭관계의 한계에서 출발한다.

NoteBase